**동원시스템즈 자기소개서**

직무 : 건설영업

**1. 회사 및 해당직무에 지원한 동기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경험과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기술하세요(400자)**

   텅 빈 공간에 인간의 손으로 구조물을 세우는 일은 놀라운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면 그보다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흥미를 느껴 건축공학을 공부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활달하여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처음 만난 사람과 금방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격과 학문적 배경을 생각할 때 건설영업이라는 업무는 저의 재능과 취미로 감당할만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기대나 욕구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저의 소통 능력은 건설영업직의 인재로 합당하다고 자부 합니다. 저는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수의 스토리텔링 강좌를 수강하며 인문학적 사고를 키웠습니다. 학문까지는 아니지만 상대를 설득하는 토론의 방법을 공부하고 관련서적을 찾아 읽었습니다. 세상에 널리 회자되는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곁에 두고 몇 번째 다시 읽고 있습니다.

**2.학업 외 자발적으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참여이유, 활동내용, 느낀점 중심으로)(600자)**

  ‘100분토론’ 이라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논지도 명확하게 제시할 줄 모르면서 상대방 헐뜯기에만 급급한 정치인들을 보며 ‘우리는 정말 토론할 줄 모르는 민족이구나.’라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자괴감이 자극제가 되어 ‘한국토론협회’의 토론 수업을 수강하여 강사과정까지 수료 했습니다. 수업 도중 멕시코에서 방송되는 의류 광고를 보면서 느낀 수치심은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난투극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 그 광고는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셔츠’ 에 관한 광고였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한탄만 한다면 저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수업은 토론의 형식과 방법을 학문적으로 가르쳤으며 실기를 통한 토론의 효과와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효율적인 스피치의 방법을 배웠으며,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라는 점 또한 깨달았습니다.

  동원시스템즈가 요구하는 건설영업 업무는 이러한 설득과 경청의 자세가 가장 필요한 분야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활용 가능한 정보로 재해석하여, 상대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게 하는 업무능력이란 결국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토론수업참여와 공부로 쌓은 스피치 능력으로 동원시스템즈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영업인이 되겠습니다.

**3.타인과 협력하여 일을 할 때 본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기술하세요(400자)**

 저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소통하는 데 있어 설득보다 이해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듣고 어떤 분야의 일이라도 소통이 우선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제 의견이나 계획을 말한다면 일에 대한 상대의 생각을 알아볼 수도 있고 대처 방향도 계획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 될 때는 단호히 지적하는 성격입니다. 올바른 지적에는 기분이 나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지적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지적은 관련분야에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올바른 지적을 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철저히 준비하고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저의 성격은 융통성이 없다는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귀를 열어놓고 주위의 충고와 조언을 귀담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본인의 10년후 목표에 대해 기술하세요(직무와 관련된 목표, 직무외 목표를 나누어 기술하세요)(600자)**

  10년 후 동원시스템즈 건설사업 분야의 해외지사장으로서 동원시스템즈가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해외 고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영어를 비롯 불어와 스페인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어학시험에 도전하는 한편, 회화능력을 키우는데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동원시스템즈의 가족으로도 개인적인 인생의 주인공으로도 노력하는 건실한 사회인이 되어 동원시스템즈는 물론 세상에 유익한 사람으로 뛰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하는 한편, 대학원에 진학해 건축과 마케팅에 대해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배움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20년 후쯤에는 저만의 영업노하우를 담은 책을 집필하여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한 노력으로 입사 후 글쓰기 공부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원시스템즈에서 저의 아름다운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